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학 교육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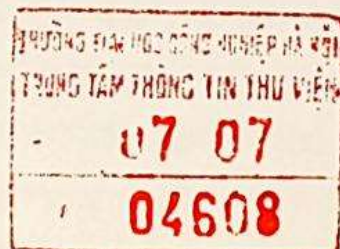
....

조수진

역락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학 교육 방법

조수진



역락

| 머리말 |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학 교육은 언어 교육과 함께 세련된 고급의 한국어 담화와 맥락, 문화 중심의 교육에 방향성을 두고 있다. 한국의 대학에 진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학문 목적 유학생들을 위한 문학교육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해외 한국어학과에서도 문학교육은 일정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어교육에서 외국인을 위한 문학교육의 필요성을 간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을 위한 문학교육은 교육 작품의 선정과 학습 목표, 그리고 교육 방안에 이르기까지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부여안고 박사과정부터 시도해 온 작은 글들을 모아서 하나의 책으로 묶게 되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더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 글이 하나의 연구 방법의 사례로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자면 우선 1장의 글은 이별의 문화적 보편성과 고유성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원형 상징을 활용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한국인과 중국인을 대상으로 원형 상징에 대한 개념화와 문화적 인식, 전통 사상 등을 기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김소월의 시에 나타난 ‘이별’의 양상과 비교하여 보았다.

2장은 황순원의 「소나기」를 대상으로 언어적 측면에서 중국인 학습자의 개념적 은유 양상을 고찰하고 학습자의 문학적 맥락화 양상을 질적으로 접근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경험을 반영한 은유 표현 학습에 주안점을 두고 교수-학습 방안을 설계하였다.

3장은 한국 소설 「소나기」와 중국 소설 『산사나무 아래』를 대상으로 작품

6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학 교육 방법

에 나타난 '사랑'의 언어 표현을 은유와 환유로 분석하고, 애뜻함의 감정 흐름을 분석하였다.

4장은 한국학의 측면에서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과 중국 소설 라오서(老舍)의 『낙타상즈』를 비교문학적 관점으로 고찰하여 '아이러니'의 문학적 주제를 비교 교육하는 방법이다.

5장은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집단주의 문화와 유교적 가치를 나타내는 동양의 '체면' 문화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체면의 기능을 중심으로 채만식 소설과 라오서(老舍) 소설에 나타난 '체면'의 양상을 비교 연구하였다.

6장은 집단주의 문화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수줍음과 친밀감을 통계화한 양적 연구의 사례이다. 한국인·중국인·일본인의 수줍음과 친밀감의 감정에는 차이가 있다는 가설에 따라 감정의 척도와 차이점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7장은 집단의 가치관을 내재한 내러티브로 한국과 베트남의 설화를 활용하여 한국에 이주한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가족문화를 비교하는 교육 내용이다.

이 책이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교육을 공부하는 학부 혹은 대학원생들, 외국인들에게 문학을 가르치는 교사들과 일반인들에게 작은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문학교육에 눈을 뜨게 해 주신 임경순 교수님과 양적 연구 방법을 가르쳐 주신 이재은 교수님, 그리고 가족과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2018년 1월

조수진

| 차례 |

머리말_5

1. 한국어교육에서 김소월 시에 나타난 '이별'의 정서 교육 방안
- 「진달래꽃」, 「초혼」, 「접동새」를 중심으로 .. 9
2. 한국어교육에서 「소나기」에 나타난 '정서' 표현 교육 방안 .. 35
3. 「소나기」와 『산사나무 아래』에 나타난
 '사랑'의 정서 표현 비교 .. 61
 - 언어 표현과 감정의 흐름을 중심으로
4. 「운수 좋은 날」과 『낙타상즈』에 나타난
 '아이러니'의 정서 표현 교육 방안 .. 85
5. 채만식과 라오서(老舍)소설에 나타난 '체면' 문화 비교 .. 107
6.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한·중·일 대학생들 간의 정서 차이 .. 133
 - '수줍음'과 '친밀감'을 중심으로
7.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한·베 설화에 나타난
 가족문화 교육 방안 .. 153

한국어교육에서 김소월 시에 나타난

‘이별’의 정서 교육 방안

— 「진달래꽃」, 「초혼」, 「접동새」를 중심으로

1. 한국어교육에서 정서 교육의 필요성

문학은 언어로 표현되며 문학 작품에는 언어와 문화, 문학 본연의 언어적 기능이 내재되어 있다.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작품을 학습하는 것은 언어 기능 이상의 것으로 그 나라의 문화를 함의한 문학 본연의 정서 학습까지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I. A. Richards는 문학 본연의 언어 기능을 정서 언어로 설명한 바 있다. 리처즈는 언어의 기능을 지시 언어와 정서 언어로 분류하였다. 지시 언어는 과학적 사실적 진술로 나타나며 말의 과학적 용법으로 사용된다. 이와 달리 정서 언어는 시처럼 감정과 태도를 불러일으키는 언어를 말하며 정서나 태도의 효과를 위한 정서적 용법으로 사용되며 문학 형식의 언어로 표현된다. 리처즈는 모든 언어는 원래 정서적이었으며 언어의 과학적 용법은 훨씬 뒤에 발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¹⁾ 리처즈는 시(詩)에서 지시 언어

1) I. A. 리처즈, 이선주 옮김, 『문학 비평의 원리』, 동인, 2000.

정서 언어와 지시 언어는 언어 목적에 따른 상위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의사소통을 위한 일반적 언어 기능인 말하기, 쓰기, 듣기, 읽기는 행동 방식에 따른 하위

가 태도에 종속되는 명백한 예를 제시하면서 정서 언어의 최고의 형식을 시 작품으로 보았다.

정서 언어를 대표하는 시 작품은 시를 접하는 독자에게 심미적, 경험적 가치를 제공한다. 시의 언어는 사전적 의미에서 한 단계 나아가 함축적이고 다의적인 의미를 내포하면서 시적 맥락을 통해 의미를 파악하게 한다. 이러한 시 텍스트의 고맥락 성격은 시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시적 맥락과 상황에 따라 작품 안에서 생략되고 함축된 의미들을 독자의 상상력으로 증폭시키면서 의미를 무한정 확장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 편의 시를 감상한다는 것은 독자들의 경험과 사고를 반영한 심미적이고 경험적인 시적 의미를 수용하는 작업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시를 처음 접하는 외국인 학습자들은 시 장르의 특성상 맥락이 높은 텍스트에 나타나는 의미 해석과 공동체의 정신 문화의 특질로 나타나는 정서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한 편의 시에는 다양한 맥락과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수용될 수 있는 정서가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시적 정서는 문학적 특질로 표현되며 문화적 경험과 사고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때로는 난해하기까지 하다. 한 나라의 문학을 이해하는 것은 그 문화권의 정신적인 집합물을 수용하는 작업이 될 것이며 정서의 수용은 궁극적으로 문학 작품의 올바른 수용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한국어교육에서 정서와 관련된 시 교육 논의는 많지는 않지만 정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어교육에서 정서 학습과 관련된 시 교육에 대한 논의로 김지연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발화의 내적 구조에 주목해 시 텍스트의 배경 지식과 정서 공감을 이끌어내려 하였다. 그리고 한국어교육에서 시 작품의 정서 학습과 문화 학습, 역사 학습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김소월의 시 「접동새」를 활용 사례로 들었다.²⁾

황인교는 한국어교육에서 한국문학을 교육하는데 교사, 학습자 요인을 분석하고 한국어교육에서 학습자 변인에 주목하였다.³⁾ 한국의 시를 공부하는 학습자와 관련하여 윤여탁은 학습자의 학습 목적에 따라 한국 시 교육을 교양 교육 차원, 문화 교육 차원으로 구분하고 각 목적에 따라 작품별로 김소월의 시를 가르칠 것을 제안하였다. 교양 교육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는 김소월의 시로 「산유화」,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를 예로 들었고, 문화 교육 차원에서는 배경 설화를 모티프로 창작된 김소월의 「접동새」와 판소리 「춘향가」를 모티프로 한 「춘향과 이 도령」, 서도(西道) 민요에 바탕을 두고 창작된 「나무리별노래」 등을 들었다. 문학교육 차원의 교육은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예로 들면서 이 시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한국 현대시의 형식적 특성을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동감(同感)할 수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고 했다. 그리고 김소월의 대표작인 「초혼」도 전통 시가와 관련시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⁴⁾

위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 글은 한국어교육에서 학습자들에게 학습된 시 작품으로 공통적으로 논의된 김소월의 시 작품에 주목하여 서로 다른 문화적 환경과 정서를 가진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김소월이 표현한 '이별'의 정서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의 문제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문학적 주제로 나타나는 '이별'의 정서를 고찰한 후 김소월 시에 특징적으로 나타난 '이별'의 정한을 이별에 대한 보편 정서와 '이별'의 특이성으로 나타나는 한국의 고유 정서로 살펴볼 것이다. 그리

2) 김지연, 「시(詩)를 활용한 한국어교육의 실제」, 『한국어교육』 제12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1, 89-109면.

3) 황인교,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학」, 『이화여대 한국어문학연구소』 22권, 이화여대 한국어문학연구소, 2004, 5-29면.

4) 윤여탁, 『외국어로서의 한국문학교육』, 한국문화사, 2007.

고 상이한 문화적 정서를 가진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김소월 시에 나타난 이별의 정서를 교육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2 '이별'의 문학적 정서

문학 작품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서 중에서 이 글이 김소월의 시에 주목하는 것은 그의 작품이 '이별'과 관련된 정서의 보편성과 고유성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별'은 인간의 삶을 표현하는 문학적 주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문학 작품을 통해 '이별'은 연민을 기저로 하는 문학적인 정서로 형성된다. 이별에 관한 문학적 정서는 이별의 양상과 문화에 따른 슬픔의 인식 정도⁵⁾에 따라 비탄과 비애, 우수 등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

한국의 전통 시가에서 '이별'은 주로 사랑하는 임과 이별하는 경우와 죽은 이를 추모하는 경우로 나타난다. 신라시대 향가 「모죽지랑가」, 「제망매가」는 각각 화랑의 죽음과 누이의 죽음을 추모하는 이별을 나타낸다. 「정읍사」, 「가시리」, 「서경별곡」과 같은 고려가요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노래한다. 이와 같은 고려가요 작품 속 화자는 공통적으로 여성이

5) 정서가 사회적으로 구성된 문화적 산물이라는 관점에 따른다면 각 문화권이 인식하는 정신문화에 따라 정서가 다르게 표현된다. 이를 보면 이별과 관련된 문화적 정서가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 우리가 이별을 할 때 느끼는 보편적인 감정은 슬픔일 것이다. 슬픔(sadness)은 상실감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이다. 타히티인의 경우 슬픔이라고 부르는 단어가 없는 대신 'pe' a pe' a'(병들거나 피로하거나 난처하다)고 표현한다. 타히티인은 슬픔을 병의 개념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타히티어에서 슬픔이라는 단어의 부재는 생물학적 의미에서는 '실재하는' 감정일 수 있지만 사회적 중요성이 너무 적어서 질병 및 에너지 결핍과 언어적으로 합쳐진 것이다. 중국에서도 상황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정서적 용어로 '슬픈'이 아닌 신체 용어 '병든'으로 묘사한다.

James W. Karat, Michelle N. Shiota, 민경환, 이옥경, 김지현, 김민희, 김수안 옮김, 「정서심리학」, 시그마프레스, 2007, 63-94면.

면서 떠나는 남성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정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별의 정한에 대한 여성 화자의 정서는 민요 「아리랑」으로 이어져 한국인의 정서를 대표하는 표현 양식이 되었다.

한국인의 의식구조에 따른 고찰로 이규태는 한국인에게 '이별'이란 '떠난다는 것'과 '마지막'이라는 두 상황이 미분리 상태로 있는 것으로 보았다. 즉, 한국인은 누군가 떠난다는 것이 곧 마지막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정착 농업 생활을 해온 한국인에게 '이별'은 정서적 측면에서 밀도가 높은 떠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차가 떠나는 것'에 많은 정서적 의미를 두는 한국인은 '차가 떠남'이 '마지막 이별'이라는 슬픔의 정서를 형성하며 이별에 대해 유난히 슬퍼하고 이별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크다. 이와 함께 한국인의 가족 중심주의는 가족을 중심으로 구심(求心)적 행동이나 정서를 발달시키는데 가족과의 헤어짐은 '이별'에 대한 정서적 중량을 더욱 무겁게 한다.⁶⁾

'이별'을 포함한 슬픔 표현과 관련된 한국인의 특수 정서 중에서 '한(恨)'의 정서는 한국인에게 이별의 문학적 주제로 논의되어 왔다. 한(恨)의 정서를 논의한 대표적 논자로 천이두는 '한'이 부정적 정서에서 출발하였지만 한국인의 주체 안에 '삭임'의 과정에서 발효된 정서로 '수동적'이면서 극복 의지를 가진 '적극성'을 지닌 '긍정과 부정의 복합체'로 보았다.⁷⁾ 특

6) 이규태, 『한국인의 의식구조 4』, 신원문화사, 1983.

7) 천이두에 따르면 한(恨)이 긍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일례로 한(恨)이 정(情)의 감정으로 연결된 표현이 있는데 시가(詩歌)에서 '다정다한(多情多恨)'을 일례로 들었다. 작품의 용례로 「홍부전」의 홍부는 '한이 많은 사람'이고 '설움이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 말은 한이 '설움'이라는 슬픔의 정서와 '정'이라는 긍정의 정서와 연결되어 한국인의 정서에서 '한이 많은 사람'은 '다정다감한 사람'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영어로 한(恨)이 '분노(resentment)'로도 쓰이며, 일본어로는 '원한(怨恨)' 정도로 번역될 수 있는 점으로 보아서 한국의 한(恨)과 상반된 정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천이두, 「한국적 한의 일원적 구조와 그 가치생성의 기능에 대한 고찰 -한 용례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한국언어문학회, 1989, 261-294면.

히 그는 김소월 시에 나타난 설움과 슬픔과 관련된 ‘한’의 정서가 이별의 정한(情恨) 모티프로 작용함을 강조했다.

‘떠남’이 곧 ‘마지막’이라는 한국인의 현실인식이 ‘이별’의 정한이라는 문학적 주제로 표출된 김소월의 시는 민요 「아리랑」에서 현대시로 이행하는 과정에 위치한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철도의 발달과 먼 거리 이동이 전개됨에 따라 다양한 이별의 양상이 생겨나고 이에 대한 표현 방식도 늘어 가는데⁸⁾ 그 지점에 있는 김소월의 시는 작품 전체에 ‘이별’의 정서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장은 김소월의 작품 중 한국인의 애송시로 손꼽히는 「진달래꽃」과 「초혼」, 「접동새」를 중심으로 작품에 표현된 보편 정서와 ‘이별’에 대한 한국의 문화적 고유 정서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김소월 시에 나타난 ‘이별’ 정서의 보편성과 고유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3. 「진달래꽃」, 「초혼」, 「접동새」의 ‘이별’ 정서

김소월의 시는 한국인이 애송하는 시로 손꼽혀왔고 대부분의 시가 노래로 만들어져⁹⁾ 대중적인 사랑을 받아왔다. 김소월의 시가 한국인의 애송시로 자리 잡은 데에는 한국인들이 거부감 없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정서적 공감대 형성에 있다. 김소월의 시는 형식적인 면에서 민요조 운율을 자유롭게 변주하는 음수율로 한국인에게 친근한 리듬감을 느끼게

8) 정우택, 「근대적 서정의 형성과 이별의 양상」, 『국제어문』 38집, 국제어문학회, 2006, 255-286면.

9) 김소월의 시는 노래로 개작되어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바 있다. 김소월의 시 중에서 노래로 만들어진 시는 다음과 같다. 「진달래꽃」, 「초혼」, 「산유화」, 「못 잊어」, 「엄마야 누나야」, 「개여울」, 「왕십리」,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님의 노래」, 「부모」, 「비단안개」 등.

한다. 3음보라는 민요조 가락이 내재된 시 특성상 친숙한 한국적 가락이 노래로 만들어지면서 한국 특유의 정서를 더욱 잘 표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김소월 시의 또 다른 특징은 다양한 원형적 이미지와 한국의 문화 상징¹⁰⁾을 시의 소재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형적 이미지는 시의 보편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의 시에서 찾을 수 있는 문화 상징은 문화적 함의를 내재한 집단적 의식을 나타내면서 작품 안에서 한국의 독특한 정서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김소월의 시 작품 중에는 집단적으로 전승된 설화가 작품의 주제의식 구현에 영향을 미치는 작품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진달래꽃」, 「초혼」, 「접동새」는 김소월의 대표작들이면서 이러한 특징들을 모두 갖추면서 '이별'의 정서를 담고 있는 작품들이다. 세 작품은 공통적으로 문화 상징과 집단 내러티브로 전승해온 설화가 작품에 내재해 '이별'에 대한 문화적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각 작품들에 특징적으로 나타난 문화 상징과 집단 내러티브, 그리고 문학적 표현 양상을 중심으로 '이별'을 나타내는 시적 정서를 살펴볼 수 있다. 「진달래꽃」, 「초혼」, 「접동새」의 순서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이별의 순차성과 심층 정도, 내러티브 표현 양상의 추이에 따른 것이다.

세 작품에 나타난 보편 특징을 고찰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 이 글은 보편성의 개념으로써 '원형(原型)'¹¹⁾에 접근하여 김소월의 「진달래꽃」, 「초

10) 한국어교육에서 상징과 관련된 시 교육 연구로 김혜진은 한국인의 정신세계 수용 방법으로 '상징'에 주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상징을 원형 상징, 문화 상징, 개인 상징으로 분류해 김소월의 시에 나타난 원형 상징은 '새', 문화 상징은 '근원 설화 차용', 문학적 특성인 개인 상징은 '임'으로 접근한 바 있다.

김혜진,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 시 교육 연구」, 상명대 석사학위논문, 2008.

11) 표준대사전 정의에 따르면 원형(原型)은 문학 용어로 본능과 함께 유전적으로 갖추어지며 집단 무의식을 구성하는 보편적 상징을 의미한다. 원형은 민족이나 문화를 초월하여 신화, 전설, 문예, 의식 따위의 주제나 모티프로 되풀이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오랜 역사 속에서 겪은 조상의 경험이 전형화되어 계승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심리학자인 융은 원형(archetypus)을 집단적 무의식과 관련해 설명한 바 있다. 융이 말하는 원형은 집단적 무의식을 내용으로 하며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모든 사람에게 존

● ● ●

한국의 대학에 진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학문 목적 유학생들을 위한 문학교육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해외 한국어학과에서도 문학교육은 일정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어교육에서 외국인을 위한 문학교육의 필요성을 간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을 위한 문학교육은 교육 작품의 선정과 학습 목표, 그리고 교육 방안에 이르기까지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부여안고 박사과정부터 시도해 온 작은 글들을 모아서 하나의 책으로 묶게 되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더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 글이 하나의 연구 방법의 사례로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 ● ●



ISBN 979-11-6244-109-1

정가 15,000원